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5회 롯데 오픈’ 3R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박혜준, 노승희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5회 롯데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일(목) ~ 7월 6일(일) |
| 3 | 장 소 |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[미국(OUT) / 오스트랄아시아(IN)]  |
| 4 | 주 최 | 롯데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8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이가영, 고지우, 이예원, 최혜진, 김효주, 박현경, 이동은, 홍정민, 방신실, 노승희김민선7, 정윤지, 김민주, 박보겸, 최예림, 성유진, 장하나, 이정민, 황유민, 이소영김시현, 정지효 등[‘제15회 롯데 오픈 퀄리파잉 토너먼트’ 상위자격 출전자]- 프로: 고지원, 김나영2, 김윤경2, 박예지, 백소원, 서하영, 손연정, 송가은,  송민교, 신지원2, 심지연, 양진서, 장은수, 정세진, 정지현, 허윤서 / 16명- 아마추어: 안윤주(A), 양윤서(A), 최정원(A) / 3명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박혜준 3라운드 중간합계 15언더파 201타(68-67-66) \*단독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8>

**오늘 버디 4개, 이글 1개, 보기 없이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다. 전반적으로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나?**

특별한 전략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플레이했다. 샷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 샷을 믿고 버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다.

**이글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면?**

티 샷과 3번 우드로 했던 세컨드 샷 모두 정말 잘 맞았다. 어프로치 상황에서도 58도 웨지로 생각한 랜딩 포인트에 정확히 맞춰서 샷을 했고, 그대로 공이 들어갔다.

**이번 대회에서 오랜만에 우승 기회를 잡게 됐는데,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?**
저번 ‘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’ 때부터 뭔가 흐름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. 캐디가 “언젠가는 너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."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 기회가 온 것 같아 내일까지 잘 해보고 싶다.

**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기가 쉽지 않은데, 이번 대회를 앞두고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나?**
원래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던 스타일이었는데, 올 시즌 초반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다. 그러던 중 컷 탈락을 두 번 연속으로 하고 나서 예전에 함께했던 프로님을 찾아갔는데, ‘예전처럼 자신감을 가져라’는 말을 들으면서, 이번 주에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다. 그게 지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.

**내일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전략?**
특별한 전략은 없다. 오늘처럼 샷을 믿고 기다리는 플레이가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. 급하게 가지 않고 차분하게 기회를 만들어가겠다.

**챔피언조에서 선두로 나서는 것은 처음인데, 내일 경기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부담감은 없나?**
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, 최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한다.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.

**◈ 노승희 3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(68-66-68) \*단독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13>

**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어땠나?**
보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라운드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인 것 같다. 무빙데이였고, 핀 위치도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하게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잘 맞아떨어졌다.

**전장이 긴 편인데, 장타자는 아니지 않나, 이런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은 무엇인지?**
5~7m 거리의 중장거리 버디 퍼트를 여러 번 성공하면서 타수를 줄일 수 있었다.

**내일은 우승 경쟁을 하게 된다.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플레이할 생각인가?**

내 안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잘 절제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내일도 코스 컨디션상 버디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최대한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

**어제는 샷은 안정적으로, 퍼트는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, 오늘 전략이 잘 통해 챔피언조에 올랐다. 내일은 전략에 변화가 있을까?**

내일도 1,2,3라운드와 같은 전략으로 갈 생각이다. 아이언 샷은 최대한 안전하게 그린을 공략하고, 퍼트는 과감하게 시도하는 방향을 유지하겠다.